

멕시코 100년 만기 15억 유로 정부채 발행 성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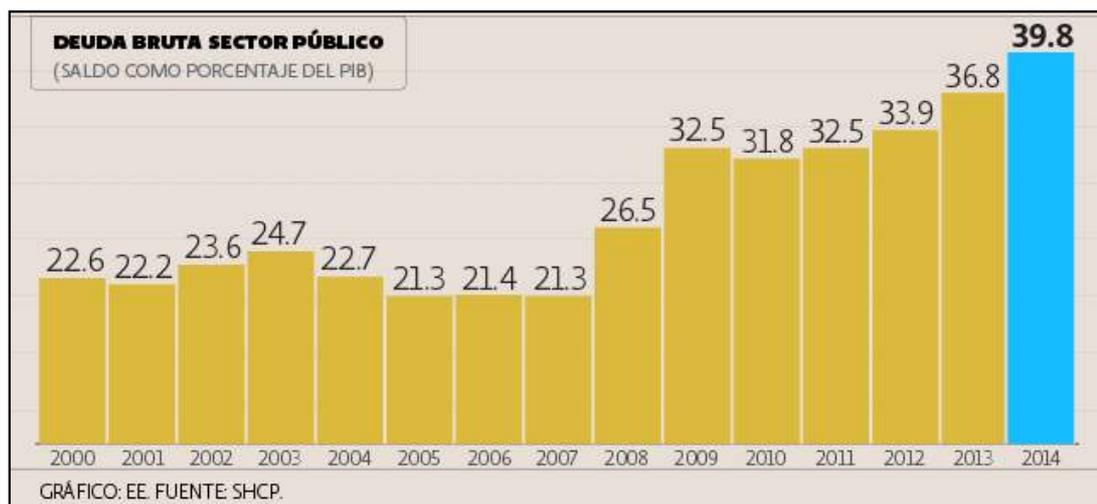
(2015. 4. 9)

멕시코시티사무소

1 정부채 발행내용

- 발행 규모 : 15억 유로 (약 16.2억불)
- 채권수익률 : 연 4.2%
- 만 기 : 100년 (2115년)
- 발 행 자 : 멕시코 재무부(SHCP)
- 발행주관사 : Goldman Sachs, HSBC
- 부여신용등급 : A3(Moody's), BBB+(S&P, Fitch)
- 발행목적 :
 - 현 유로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 조달
 - ⇒ 멕시코는 국가 GDP 대비 공공부채의 지속적 증가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등으로 현재 저렴한 자금조달이긴요한 상황

연도별 멕시코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(%)



- 조달 자금은 Refinance 용도 등으로 사용될 예정

2 시사점

- 금번 유로화 채권 발행 성공('15.4.8)은 최근 유가하락 및 사회적 불안 가중 등으로 제기된 암울한 멕시코 경제예상을 일축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음

-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참여자 대부분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멕시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한 것으로 보임
 - 금번 채권발행 관련 주문받은 금액은 총 60억 유로 (발행규모 대비 4배) 였음
 - 당초 발행 주관사가 예측한 금리수준은 4.50%로 예상했으나 초과 수요 등을 감안 최종 4.20%로 결정됨

- 또한 멕시코는 금번 채권발행으로 중남미 제1의 경제 대국인 브라질과의 명확한 차별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임
 - 최근 브라질은 계속되는 경제 부진, 증가하는 거시경제 불균형, 재정악화, 정부부채의 실질적인 증가로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 증대 중임
 - Fitch 브라질 국가신용등급(BBB) 전망을 Negative로 조정('15.4.9)
 - 또한 브라질은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비리 스캔들에 따른 대규모 시위 발생, 가뭄으로 인한 흉작 및 산업용 전력 공급량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 중임

참 고

JP Morgan의 EMBI+ (Emerging Market Bond Index)*

□ 중남미 주요 국가별 수치

○ 멕시코 196 bp, 브라질 317 bp, 아르헨티나 628 bp (2015.4.1) 순

* 신흥시장 채권지수로 선진국 안전자산 대비 신흥시장국 채권의 가산
금리 수준

국가별 EMBI+ 추이 (bp)

